

#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대한 의학적 고찰

-저자, 판본, 간행배경, 편제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사과정 박문현

## Medical historical investigation regarding Hur Im's 『Chim Gu Kyung Heom Bang』

Park Mun-hyun

This book is unique in that acupuncturist Hur Im, who practiced in the mid-chosen era, had written about clinical experiences throughout the author's life. It features simplicity and practicality. The book has had tremendous effect in the field of acupuncture at the end of chosen era and it was also published both in China and in Japan with much appraisal.

### I. 서론

침구의학은 오랜 시간적 지리적 차이에 따라 여러 의가들에 의해 多樣한 발전과 多岐한 유파<sup>1)</sup>를 형성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침구역사 또한 외래적인 이론의 수용과 자체적인 경험을 잘 접목해 가며 고유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침을 맞는다, 뜸을 뜬다, 부항을 붙인다.”<sup>2)</sup>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낯설지 않

1) 魏稼 主編, 1989, 『各家鍼灸學說』 p.9 이하에서는 고대침구유파를 대략 經學派, 經穴考訂派, 穴法派, 手法派, 刺絡放血派, 重灸派, 重鍼派, 臨床各科諸派등으로 나누고 있다.

2) 부항을 ‘뜬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거 부항을 붙일 때 뜸쑤를 태워서 했던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침구경험방』에서 ‘付缸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은 친숙한 표현들이다. 우리네 사람들은 오랜 기간을 이 땅에서 이런 치료수단을 사용하며 질병에 맞서 왔고, 침구치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관심과 신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어느정도는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속에 오늘 우리 땅의 침구라는 치료형태를 전수하는데 충실한 주자역할을 했던 대략 400년전 조선의 鍼灸醫家<sup>3)</sup> 許任과 그의 저술 『침구경험방』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가 활동했던 17세기 전후 무렵은 조선 사회가 한바탕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고난 어려운 시기였으나, 한편으로는 조선의학사의 새로운 한 장을 열어간 학문적 의욕과 성취의 시기이기도 했다. 물론 그 의학사적 성취의 최고봉이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침구학 분야만을 놓고 본다면 허임과 그의 『침구경험방』 역시 이 시대가 거둔 의학적 성과의 우뚝한 봉우리임에 틀림없다. 조선초기 이래로 침구치료는 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었지만, 특히 이 시기는 왕실과 민간 할 것 없이 침구임상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었던 때였고, 허임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주도해간 대표적 인물이었다.

『침구경험방』은 침구대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허임의 일생에 걸친 임상적 경험과 고심을 모은 조선땅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본격적인 침구전문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학사적 의미를 지니는 허임과 그의 저술이 오늘날 거의 잊혀진 존재에 가깝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침구경험방』은 간행 이후 治病을 열망하는 백성들의 삶에 비교적 가까이 다가갔던 실용적인 의서라는 점이 돋보이는 책이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간결한 특색은 일찍이 해외의 일본과 중국에서까지 관심과 평가<sup>4)</sup> 속에 간행되었지만, 정작 우리땅에서의 본격적인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 작업에 해당하는 허임의 생애, 『침구경험방』의 판본, 간행 배경, 『침구경험방』의 편제 및 타서와의 비교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기로 하며, 『침구경험방』내용의 구체적 분석을 통한 침구학술경향에 대한 검토는 향후의 지면에 돌리기로 한다. 필자는 조선의 침구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허임과 『침구경험방』을 바라보고 그것이 갖는 위치와 의미를 찾아보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깊이 연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가기로 한다. 본 연구가 허임과 그의 『침구경험방』을 이해하고 정당하게 평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3) 허임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鍼醫”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호칭이 간결하기는 하나 다소 기능인의 의미에 머무르는 듯 하여, 침구학술적인 면에서도 큰 기여를 했던 허임에게는 “鍼灸醫家” 또는 鍼灸家라는 호칭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4) 山川淳菴의 『침구경험방』 일본판 서문중 “而覽其所著 要而不煩 簡而無遺 所謂撮百家之要 闢千古之秘者也”

본다.

## II. 본 론

### 1. 허임의 생애에 대하여

허임은 조선중기 임란직후에 명성을 떨쳤던 침구의가이다. 그에 관하여 전해지는 기록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자세히 재구성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저술 『침구경험방』의 서문과 발문등에 기록된 사실과 조선왕조실록<sup>5)</sup>을 통해 그가 침구의가로 활약하면서 왕실의 침구치료를 담당했던 모습과 그의 신상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일부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그의 生卒年에 대해서는 1570~1647년이라는 기록<sup>6)</sup>도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고 출생지도 미상이다. 전라도 나주에 있는 집에 내려가 있었다는 실록의 언급으로 보아 그의 고향이 나주일 가능성도 있다.

허임의 출신에 대해서는 이견<sup>7)</sup>이 있다. 실록상의 언급을 신뢰한다면 그는 賤民출신임이 분명하다. 그의 부친은 許億福(혹은 許億逢)이라는 이름의 樂工으로 官奴였고, 그의 모친은 私婢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世譜의 기록은 이와 다르다. 그가 쓴 서문 말미의 “河陽 허임”이라는 언급에 주목하여, 河陽이 그의 본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河陽許氏世譜』<sup>8)</sup>를 검토한 결과 허임은 太宗分派의 21세손으로 許珞의 아들이며 벼슬은 嘉善大夫(중2품의 품계)로 楊州牧使를 지냈고, 墓는 公州郡 牛城面 韓川里라고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內鍼醫 등용 이후의 신분 상승에 따른 후대의 편입의 결과로 추측되나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허임이 언제 누구로부터 의학을 배우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왕실의 침의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려져있지 않다. 그는 의학에 입문하게된 동기에 대해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그의 책 自序에서 짧게 언급<sup>9)</sup>하고 있다. 그의 출신과 당시 침의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醫科나 鍼灸醫取才등을 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5)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1997, 한국데이터베이스연구소. 이하 왕조실록과 관련된 부분은 CD실록에서 鍼灸(전체53회), 鍼醫(전체81회), 許任(전체61회)의 세 단어를 검색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만 실록은 史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김양수, 「조선시대 의원실태와 지방관 진출」, 1999, 제296회 국학연구발표회 논문집, p.24.

7) 민족문화대백과사전(24권), 1991, 721쪽에서 金斗鍾은 허임의 본관을 陽川이라 하였다. 그러나 양친 허씨의 족보상에는 허임을 찾을 수 없었다.

8) 河陽許氏世譜卷之上 p.4, 36, 99

9) 허임의 自序 중 “少爲親病 從事醫家”

생각되며, 자학이나 지방의 명망가로부터 수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지방에서 침술로 명성이 높은 이들<sup>10)</sup>을 서울로 불러 올려 궁중 진료에 참여시킨 기록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허임도 이러한 경우를 통해 등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선조, 광해대에 걸쳐 침구의가로 크게 활약한다. 그는 당시 御醫 허준(1547~1615) 등과도 여러차례 함께 입시하여 선조의 受鍼에 따른 치료에 참여<sup>11)</sup>하기도 한다. 그가 『침구경험방』을 간행한 년도가 인조22년(1644년)인 것을 감안할 때, 허준보다는 20여년 이상 年下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왕실 침의로서의 그의 활동이 언급되어 있는 기간은 선조31년(1598)으로부터 광해군 15년(1623)까지의 26년간이며, 대략 그의 나이 29세~54세까지로 보여진다. 이는 허임이 비교적 이른 나이인 20대 후반경에 이미 왕실에서도 통할 수 있는 침구실력과 자기논리를 갖춘 영민한 사람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거의 평생에 해당하는 긴 기간을 왕실진료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그의 명성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당시 활약한 여러 침구의가들 중에서도 단연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허임은 당시 그에게 침구치료를 받았던 군왕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 여러차례에 걸쳐 경기지방의 수령직에 임명되고 東班의 位階에까지 이르는등 매우 이례적인 대우를 받는다. 광해군 이후로 의원들에 대한 권력 차원에서 경기지방의 수령으로 임명한 경우가 현저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100리 이내에 배치하였다가 위급한 치료에 활용할 목적이기도 했다.<sup>12)</sup>

그의 벼슬생활을 살펴보자. 그는 1604년 9월 선조의 편두통을 침치료로 낮게한 공으로 6품에서 堂上官으로 승진한다. 1609년에는 麻田郡守(현재의 경기 연천지방)에 임명되나 이내 물러나게 되고 實僉知에 除授된다. 이 무렵의 그의 생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의 공로와 재주를 인정하여 그에게 고을 수령자리를 배려했던 광해군의 말로부터 그가 모친과 함께 궁핍한 처지에서 살았다는 정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1612년(광해4) 8월에는 광해군이 해수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남으로 내려올 때까지 시종한 공으로 3등공신으로 허준과 함께 醫官錄에 기록되었고, 永平縣令(1616년, 현 경기 포천지역), 楊州牧使, 富平府使(1617년)를 거쳐 1622년에는 수년간 入侍受鍼한 공으로 南陽府使(1622년, 현 경기 수원, 화성 일원)에 특제되기까지 여러 관직을 역임하게 된다.

그러나 천출이었던 그가 封君이 되고 錄勳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사헌부를 위시한 양반

10) 허임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全微, 金龜相, 金英國, 白鶴起, 李馨益 등의 침구의가들은 모두 각지방에서 善鍼으로 명성을 떨치던 자들이었다.

11) 실록상으로는 선조34년(1601)에 허준과 허임이 처음으로 함께 입시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해 3월에 의관 허준, 李公沂, 김영국, 허임이 입시하였고, 선조37년(1604) 9월의 선조의 편두통 치료, 선조39년(1606) 4~5월의 5차례에 걸친 침치료, 선조39년(1608) 9월의 4차례에 걸친 침치료에도 어의 허준, 조홍남, 이명원과 침의 남영, 허임, 김영국, 유계룡 등이 입시하여 함께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12) 김양수, 상계논문집 P.23~24

관료들은 매우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지방관 생활은 여러차례 탄핵<sup>13)</sup>을 받는등 그리 순탄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조선 사회의 기술직에 대한 천시와 이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양반 관료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sup>14)</sup> 때문이었다.

광해15년(1623) 의관들이 임금의 하교를 외부로 누설시켰다는 이유로 광해군의 질책을 받게 되고, 허임은 어의 조홍남, 침의 유대명, 안언길등과 함께 推考와 감봉을 당한다. 이 어지는 인조 재위시에는 허임의 이름이 실록상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가 인조의 어의로도 활동했는지, 아니면 왕실의 침구진료를 그만둔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을까?

1644년(인조22년)에 21년의 배일을 뚫고 『침구경험방』이 간행된다. 『침구경험방』의 발문을 쓴 李景奭<sup>15)</sup>(1595~1671)에 따르면,

“許太醫는 평소 神의 기술을 가진 자로 일컬어져 평생 구하고 살린 것이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 그간 죽은 사람도 일으키는 효험을 많이 거두어 명성을 일세에 날렸으며 鍼家들이 추대하여 머리로 삼는다”<sup>16)</sup>

라고 허임에 대한 세간의 높은 평가를 전하고 있다.

허임 자신은 그의 서문에서,

“...오랜동안 공을 들여 鍼灸의 門戶를 대중이나마 알게 되었고, 이제 노쇠하게 되어서는 올바른 침구의 법이 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이는 내가 일생동안 한 고심의 결정이며.....”<sup>17)</sup>

라고 『침구경험방』을 저술하게 된 심경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허임이 자신의 평생에 걸친 침구 임상경험을 후학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말년까지 침구연구에 분투정진하며 저작을 준비한 사실을 말해 준다. 또한 그의 저술이 간행될 수 있기까지 그가 어떤 형태로든 당시 조선의 중앙 관계나 의료계내에서 침구의가로서의 존경과 신임을 계속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세에 鍼靈으로 불리웠던 허임은 과연 어떠한 독자적인 경험을 그의 책 『침구경험방』에 녹여 넣었을까?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이후 조선 후기의 침구학 발전에도 많은 영향<sup>18)</sup>을 미쳤다. 숙종 때의 崔有泰<sup>19)</sup>(1629~ ?)와 吳鼎和는 모두 허임의 영향을 받아 이름을 날린 의가로

13) 왕조실록 32집 p.566~570,573,579,598(광해9년 2/18~11/10까지) 참조

14)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1988, p.291

15)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白軒. 춘추관 史官을 지냈고, 『침구경험방』 간행 당시 내의원 조제의 자리에 있었다.

16) 『침구경험방』 발문중 “許太醫 素稱神術 平生所救活 指不勝屈 間多起死之效 名聲動一世 刺家之流 推以爲宗”

17) 허임의 자서중 “...積久用功 粗知門戶 及今衰老 仍恐正法之不傳 乃將平素聞見 粗加編次 ...又著雜論若干 ...非敢自擬於古人著述 只爲一生苦心...”

18) 이는 『침구경험방』을 일본에 전한 山川淳菴의 서문에 나와 있는 목격담에서도 드러난다. (본 글 註31 참조)

19) 조정준, 『금유방』(1749)에서는 “숙종때 太醫知事 崔有泰, 別提 吳鼎和는 다 허임의 침법을 계

알려지고 있고, 조선의 독특한 침법인 사암침법의 형성<sup>20)</sup>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의 민간경험방<sup>21)</sup>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세인들이 집록한 것으로 전해지는 『東醫聞見方』 및 『四醫經驗方』<sup>22)</sup>의 저자로도 꼽히고 있어, 여러면에서 그의 영향이 매우 광범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자료1〉

실록을 근거로 본 허임의 생애 연표 (나이는 1570년을 출생년으로 보았을 때의 추산임)  
1598년(29세)

처음으로 鍼醫로 등장 언급.

1601년(32세)

의관 허준등과 함께 입시하여 선조의 침치료에 참여함.

1602년(33세)

고향에 물러가 있음. 침을 잘 놓아 일세에 이름을 날리는 자로 언급

1604년(35세)

9/23 선조의 갑작스런 편두통에 야간 입시 진료. 아시혈에 대한 평소 허임의 견해를 허준이 언급함.

10/23 편두통의 치료로 포상을 받음. 6품의 직에서 堂上(通政大夫)으로 전격 승진. 諸臣들의 諫諍이 있었으나 윤택되지 않음.

1606년(37세)

4/26,29,5/2,4,6일 연속 다섯차례에 걸쳐 허준, 조홍남, 이명원등의 어의 3명, 다른 침의 남영, 김영국과 함께 입시하여 침치료 함.

9/14,16,18,20일에도 입시하여 진료함.

1609년(40세)

麻田郡守에 임명됨. 그러나 사헌부의 계속된 遞差 건의에 의해 이내 물러나게 되며, 兪知에 제수됨. 당시 허임은 모친을 봉양하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기록에 의하면 허임은 광해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았는데, 先祖에 이미 큰 공로를 인정받아 東班의 벼슬길을 텃다. 광해는 하늘이 인재를 인재를 태어나게 하는데 귀천의 구분이 없

---

승하여 당시에 유명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유태는 인조7년생으로 효종2년의 의과출신 의가이다.(김두중, 한국의학사p.398참조)

20) 김달호외, 「사암침법의 저작시기 및 형성배경에 관한 연구」, 1995, 한국의학사 논문집, p.206이하. 그는 “사암침법 필사본의 변증시치 중에서 중풍, 광란, 각기, 口病門등은 허임의 『침구경험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21) 홍만선, 『산림경제』(1715년경)의 인용서중에도 “허임경험방, 침구경험방”이 언급되고 있다. 산재해 있는 조선후기의 민간경험의료에 대한 기록들 가운데도 『침구경험방』의 흔적은 많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된다.

22) 三木榮. 『조선의서지』 p.111

다는 생각하에, 그의 제주나 공로로 보아 잔폐된 고을의 수령으로 보내어 목민의 직임을 맡기는 것도 안될 것이 없다고 보고 그를 군수에 임명하지만, 사헌부의 반발을 만난다. 몇 차례의 윤택 불가에도 사헌부의 간쟁이 계속되자 마침내는 實僉知에 제수하게 된다.)

1610년(41세)

2/24 침의들을 都下에 머물게 함.

3/12 전라도 나주의 집에 있음. 올라오도록 전교를 여러차례 받았는데도 명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3/13 허임의 몸에 전부터 중병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

1612년(43세)

8/9 西路에서 남하할때 扈從의 공로로 加資<sup>23)</sup> 받음.

9/21 계사년 광해군의 서남행시에 수행하여 입침한 공로로 3등의 녹훈(錄勳)에 수록됨.

1614년(45세)

內局의 의관으로 근무함. 궐문 밖에서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임.

1615년(46세)

11/28 경기와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제수하기를 전교함.

1616년(47세)

1/23 永平縣丞으로 임명됨.

11/27 여러해 동안 입시하여 침치료한 공으로 자급을 더해 주도록 명받음.

1617년(48세)

2/12 楊州牧使에 제수됨.

2/18 사헌부가 허임이 천출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遞差를 잇달아 간청하였으나 광해군은 윤택하지 않음.

3/9 富平府使로 자리를 바꿈.

6/21 임금에게 침을 놓고 辭朝하고 임지로 돌아감

1619년(50세)

11/23 의약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시에 숙마 1필을 하사 받음.

12/13 모시고 있던 노모의 병세가 중한 까닭으로 자급을 더해 받음.

1622년(53세)

4/6 南陽府使에 제수됨.

1623년(54세)

2/19 의관들의 행위에 대한 광해군의 질책과 함께 침과 약을 중지하고, 허임 등을 내려 보냄. 다른 어의, 침의들과 더불어 推考를 받고 녹 一等을 감봉 당함. (이것이 실록에 나

23) 조선 때, 정삼품 通政大夫 이상인 堂上官의 품계, 또는 그 품계를 올리던 일을 말함.

오는 허임에 대한 마지막 기록임.)

1644년(75세)

『침구경험방』 출간 (이 기록은 실록상에는 없음)

## 2. 『침구경험방』의 간행과 판본에 대한 고찰

### (1) 초간 간행에 관하여 — 간행연대 및 관계한 사람들

『침구경험방』의 처음 간행 내력은 李景奭이 쓴 跋文을 통해 알 수 있다. 간행 연대는 “甲申年 4월” 즉, 1644년(인조2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는 영의정이었던 金瑬(1572~1648, 호는 北渚)가 내의원 都提調를 맡고 있었고, 이경식은 김류의 밑에서 의약관계의 업무를 총괄하던 내의원 提調로 있던 때로 그가 호남관찰사인 睦性善에게 부탁하여 『침구경험방』이 간행<sup>24)</sup>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발문에서 藥餌를 구하기 어려운 일반 백성들을 위해 침과 뜸은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치료 수단이며, 간결하게 요점을 잘 논한 『침구경험방』의 간행이 이에 부합되는 것으로 백성들의 救病濟活에 좋은 인도자가 될 것으로 이 책을 간행하는 취지<sup>25)</sup>의 일단을 언급하고 있다.

### (2) 현존하는 판본에 대하여

규장각 소재로 다섯 종류의 판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韓獨藥史館에 일산기념 문고본으로 목판본 3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규장각 소재의 한 목판본이 갑신년(1644년)에 간행된 초간본<sup>26)</sup>으로 여겨진다. 改鑄甲寅字중의 戊申字를 이용한 古活字本<sup>27)</sup>이 있는데, 이는 무신자가 1668년 이후 사용된 점으로 보아 초간 간행후 적어도 20여년 후에 重刊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간행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목판본과 두 종류의 필사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침구경험방』이 초간 이후에도 몇차례 활자나 목판에 의해 重刊되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두 종류의 필사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민간의 의가들이 임상침

24) 침구경험방 발문 “今首台北渚金相國都提內局 不佞適忝在下風 遂將此方 屬諸湖南觀察使睦公性善 而刊行之”

25) 上同 “金石丹砂 在僻鄉而何獲…… 鍼熨則不然 其具具備 其效甚速 而其方尤爲指南之捷徑 苟得是方 隨証治之則是家家戶戶皆得遇其神手也 其所濟活 庸可量哉”

26)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205에 초간본으로 신고 있는 그림도 이 판본으로 보여진다.

27) 崔秀漢, 1996, 『朝鮮醫籍通考』 p.92에 따르면 고향자본을 전주판으로 보고 있으나, 이 고향자본은 戊申字로 되어 있어 1668년 이후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규장각 목판본을 전주 간행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서로 이 책을 공부하고 폭넓게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아울러 이 책의 간소한 분량을 감안할 때 더 많은 형태의 필사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구경험방』은 최근<sup>28)</sup>에도 몇 차례 간행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규장각 목판본(『한국의학대계』, 38권중의 판본과 동일)을 위주로 하면서 다른 판본들을 참고하였다.

### 《침구경험방 판본 유형》

#### 1. 목판본

\*규장각 목판본: 1644년(인조22), 1冊(81張), 9行20字注雙行, 20.4×14.9cm, 규장각 소재(奎4492) → 전주초간본으로 추정됨.

\*간행년도 미상의 목판본: 1책(51장), 9행20자, 20.4×14.6cm, 규장각 소재(一叢古615.135)

\*韓獨藥史館의 一山記念文庫本<sup>29)</sup> 중에 목판본 3부 존재

#### 2. 활자본

\*古活字本(改鑄甲寅字 중 戊申字): 1668(현종29), 1책(19장), 10행17자주쌍행, 24.8×17cm, 규장각 소재(규809)

#### 3. 필사본

\*1책(74장), 25×17.6cm, 규장각 소재

\*1책(45장), 21×18cm, 표지명이 ‘鍼灸方’으로 되어 있음. 규장각 소재

4. 언해본: 『鍼灸經驗方諺解』<sup>30)</sup>

### (3) 해외에서의 간행

#### 1) 일본에서의 간행

소년기에 조선에 유학왔던 오오사카 출신 의사 山川淳菴<sup>31)</sup>은 조선의 의가들이 침구를 중시하여 침구치료로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는 것과, 鍼家들이 한결같이 허임의 침구방을

28) 최근의 간행사실: ①행림출판사, 1970(재판), 현토 불임. ②陰陽脈診出版社, 1986, ③일중사, 1992년, (행림본 영인) ④한국의학대계 38권 중 포함본, 1994년, 여강출판사(규장각 목판본을 축소 영인함)

29) 『고대의약도서목록』, p.238,243,258, 일산기념문고본, 한독약사관

30) 三木榮의 『朝鮮醫書誌』(p.110)에 나와 있다. 『침구경험방』의 전문을 諺文으로 번역한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31) 山川淳菴이 의사였다는 사실은 三木榮이 『조선의서지』(p.340)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는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조선에 유학왔을 가능성이 많으며, 그 시기는 대략 17세기 말~18세기 초엽으로 추측된다.

배워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목격<sup>32)</sup>하게 된다. 아울러 그는

“獨以朝鮮呼爲鍼刺之最 素有聲于中華 實不誣矣”<sup>33)</sup>

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침구학이 중국에까지 그 명성을 떨칠 정도로 단연 최고였다는 높은 평가이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갈 때 『침구경험방』을 가지고 가며, 후일 그가 소장했던 책을 통해 享保 10년(1725년) 일본판 『침구경험방』이 간행<sup>34)</sup>된다.

한편 1994년 중국 中醫古籍出版社가 影印 간행한 『침구경험방』은 일본 安永7년(1778년)의 浪華書林 淺野彌兵衛 판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일본에서는 최소한 두 차례<sup>35)</sup> 이상 『침구경험방』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중국에서의 간행

淸의 太醫였던 力軒舉는 소장하고 있던 중국, 일본, 조선의 많은 珍本의서를 中國醫學科學院과 中國協和醫科大學圖書館에 기증하였는데, 中醫古籍出版社가 그 중에서 학술가치가 높고 연구가치가 있는 책을 선택하여 전통의학의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총서형식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 『침구경험방』을 鍼灸善本醫書로 선정하여 1994년에 影印 간행하였는데, 판본으로는 일본 安永7년(1778년) 浪華書林판을 사용하였다. 아울러 내용개요를 통해 “조선에서 편찬한 침구전문서의 효시로……전 책의 내용이 간명하고, 조리가 분명하며, 독특한 특색을 갖추고 있어서 침구임상에 있어서 비교적 실용성이 있는 참고서라 할 수 있다.”<sup>36)</sup>라는 평가를 실고 있다.

또한 최근 청말에 廖潤鴻이라는 이름을 거짓으로 빌어 간행한 것으로 밝혀진 『鍼灸集成』이라는 책은 허임 『침구경험방』에 나오는 글자를 전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사실상 『침구경험방』의 또다른 傳本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sup>37)</sup>도 있다.

32) 『침구경험방』, 1994, 중의고적출판사, 山川淳菴이 쓴 일본판 서문중. “予少時曾遊學於朝鮮 稱習之餘間接醫人 數聽說鍼灸爲醫家之要 又行見鍼灸醫病其效最捷 就扣其所用之方法 則壹皆因許氏經驗方學而然者也……”

33) 山川淳菴의 서문중.

34) 山川淳菴의 일본판 서문중 “今茲以予所韞之許氏經驗方 投之于劔劒氏 散之于四方……享保十年 歲在乙巳 暮春三月”

35) 참고로 동의보감이 1724년, 1799년 두차례 일본에서 간행된 것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일이다.

36) “爲朝鮮編鍼灸專書之始…全書內容簡明, 條理清楚, 具有獨特之處, 是鍼灸臨床的較爲實用的參考書”

37) 黃龍祥, 1996, 『鍼灸名著集成』, 華夏出版社, p.1214. 아울러 그는 『침구집성』이라는 책을 문헌가 치조차 없는 일종의 偽書라고 혹평하고 있다. 실제로 『침구집성』은 세가지의 문헌을 짜집기하여 섞어 놓았는데, 『동의보감』의 「침구편」 전문과 각 편에 산재한 ‘침구법’, 『침구경험방』 전체, 『유경도익』의 6~8권과 4권의 일부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청말의 유명 침구의서로 알려져 있는 『침구집성』이 조선 중기의 양대 침구학적 성과를 모아놓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 〈『침구경험방』의 해외간행 내력〉

- 1.享保大阪刻本：上中下3책, 享保10년(1725년), 간행자는 岡田三郎右衛門, 大坂吳服町書林, (山川淳菴 소장본)
- 2.安永浪花刊本：安永7년(1778), 간행자는 淺野彌兵衛, 浪華書林
- 3.『침구집성』<sup>38)</sup>內 傳本：清同治13년甲戌(1874) 『勉學堂鍼灸集成』이라는 이름으로 간행.
- 4.中醫古籍出版社 간행：1994, 日本安永刊本 사용, 傅景華 等編

## 3.간행 배경에 대한 고찰

### (1)조선초기 이래 침구학 발전의 집적

시야를 좀 확대하여 조선 초기 이래 침구분야에 쏟아온 꾸준한 관심의 연장선 위에서 『침구경험방』을 한번 바라보자.(여기서는 다만 주로 침구의서의 간행과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침구분야를 중시하였다. 의학교육 과정중에서도 침구관련과목<sup>39)</sup>을 중시하여, 『銅人經』, 『鍼經指南』, 『十四經發揮』, 『子午流注』, 『鍼經摘英集』, 『玉龍歌』, 『鍼灸資生經』 등을 필독서로 지정하였고, 이러한 침구서적을 중앙과 지방에서 여러차례 간행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간행한 의서들의 경우도 침구는 항상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자주적인 의학의 기치를 내걸었던 세종때에 간행된 『향약집성방』의 경우는 권두에 단순한 수혈정리이지만 『침구자생경』으로부터 채록한 침구목록을 수록할 정도로 침구에 관심을 표했으며, 조선 최대의 종합의서인 『의방유취』에서도 상당한 침구관련서적을 인용<sup>40)</sup>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침구시일의 길흉을 택하기 위한 『鍼灸擇日編集』<sup>41)</sup>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특히 醫書撰集廳을 따로 둘 정도로 의학을 장려하며 남다른 애정을 쏟았던 성종은 八穴灸法을 덧붙인 『神應經』<sup>42)</sup>의 간행을 직접 명하기도 하였다. 『신응경』은 선조, 인조때에

38) 王德深, 『鍼灸文獻提要』, 1996, 인민위생출판사, p.164. 이에 따르면 『침구집성』은 초간 이후 1879년, 1956년에도 간행되었다. 아울러 최근 1994년, 1998년에도 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9) ①김두중, 『한국의학사』, p.421. ②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204. 이상 7개 침구서는 성종19년 『경국대전』의 의과취재중 침구의취재 과목이었다.

40) 三木榮, 『조선의서지』, p.39. 『조선의학사』, p.132,151,161. 『의방유취』에서 인용하고 있는 침구관련 의서로는 “소문, 영추 외에 明堂灸經, 鍼經, 鍼灸經, 동인경, 자생경, 子午流注, 鍼經指南, 玉龍歌, 십사경발휘, 鍼灸廣愛書括등과 성제총록”등과 같은 종합의서를 들 수 있다.

41) 三木榮, 『조선의서지』, p.54, 379. 세종때 全循義와 金義孫이 共撰. 본서는 일본에 鈔本으로 侍醫 多記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淸 光緒 10년(1890) 중국 江寧 藩署에서 重印되었다.

42) 『신응경』은 陳會가 撰한 『廣愛書』를 1425년(明) 그의 제자인 劉瑾이 보완하여 만들었다고 알려진 침구임상서로, 조선에서는 성종 5년(1474) 한계희에게 명하여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그 후 선조 및 인조 때에도 간행된 침구서로 조선중기 이후의 조선침구학에 많은 영향을 준 책이다.

도 중인되는데, 『침구경험방』은 이 책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초기에 이미 당시까지 중국에서 나왔던 주요침구관련서적을 거의 입수하여 활발히 이용하였음을 말해 준다.

조선중기에 와서는 이러한 조선초의 토양 위에 『醫學入門』, 『醫學綱目』 등 명대의학의 침구학적 성과를 적극 반영<sup>43)</sup>한 허준의 『동의보감』 침구편이 간행된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이러한 조선침구학의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양 저술은 조선중기 침구학 발전의 양대 성과물로 중국의 침구서를 그대로 사용하던 데서 한걸음 나아가, 당시까지의 침구이론을 재정리하고 임상적 경험을 결합시켜 조선의 의료실정에 맞는 침구의서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허임은 17세기 임상 침구학의 발전을 주도한 대가답게 역대침구의서를 활용<sup>44)</sup>하면서 자신의 경험적 색채를 혼합한 토속성<sup>45)</sup>이 짙은 『침구경험방』이라는 침구전문서를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 (2) 당대의 활발했던 침구치료와 침의들의 활동

선조, 광해군, 인조대에 있었던 왕실에서의 침구관련 기록을 모으면 책 한권 분량은 족히 된다. 그만큼 침구치료가 빈번했고 관심이 컸다는 말이다. 임금의 受鍼과 관련하여 병중에 대해 병기를 논한 것, 진단 차원의 의학적 설명과 치료방안에 대한 검토논의, 침구치료일자의 결정과 시침시간, 치료혈위의 선정, 도제조, 제조, 부제조등의 관리와 의관 및 침의들의 협조체계와 상호역할, 침구도구의 종류, 또한 관리들의 침치료를 위한 병가신청 등의 비교적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왕실 내에서의 빈번한 침구치료와 논의가 침구 임상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침구전문서의 간행으로 연결되었음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허임을 위시하여 당시 활동의 주역이었던 침구의가들은 주로 전국 각지에서 침술로 이름을 떨치던 자들이었다. 이들의 출신지는 옥천(전경), 거창(김귀상), 나주(허임), 金溝郡(현재의 김제군, 김영국), 영남출신(백학기)등 전국 각지에 걸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의원에서 각 道監司로 임금의 명을 전하고 말을 보내어 상경케 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의 전역에 걸쳐 유명 침구의가들이 활동했으며, 당시 민간에 있어서 침구 분야의 저변이 상당히 넓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아울러 이들 침의들에게 왕실의 침구치료를 맡겼다는

43) 『의학강목』은 『동의보감』 각 편에 산재해 있는 침구법에서 가장 많은 인용횟수를 보이고 있는 책이며, 『의학입문』 침구편도 적지 않게 인용되고 있다.

44) 『침구경험방』의 주요인용도서로는 “내경, 동인경, 신응경, 자생경, 천금방, 奇效良方, 동의보감” 등을 꼽을 수 있다.

45) 이러한 성격은 허임 스스로도 자서에서 “옛 사람들의 저술에 의존하지 않았다.(…非敢自擬於古人著述)”고 말하고 있고, 책 가운데서도 여러면에서 나타난다. 침구전문서로는 특이하게 병기에 대한 이론을 많이 정리하고 있는 점, 보사법과 침구기법들, 치료혈의 선택등에서 모두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문장서술에 있어서도 우리말 구어체식 표현을 많이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허임의 학술경향과 관련하여서는 차후 상론하기로 한다.

사실은 당시 이들의 실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들이 어떤 교육<sup>46)</sup>을 통해 침구의가 되었는지, 지방별 어떤 전승의 맥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특채방식의 침의 등용과 관련지어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당시 중앙의 醫科나 醫員取才를 통해서는 침구임상가를 적극적으로 키우지 않았다<sup>47)</sup>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력있고 명망있는 침의들을 수시로 등용하여 치료를 맡겼던 제도적 유연함과 개방성이다. 당시 내의원 의관들은 학문적으로 침구에 대해 연구하기는 했지만 직접 침시술을 하는데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습은 세종 때 鍼灸專門法<sup>48)</sup>을 두고 침구전문생을 채용하여 침구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침구치료의 유용성과 침구의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도적인 육성과 배려는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는 침구와 같이 기술적 측면이 강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내침의로서 이들은 主簿등에 除授되어 종6,7품의 하급 郎官의 직을 봉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왕실 치료의 공로로 왕의 총애를 입어 경기지방의 수령직<sup>49)</sup>에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관직 생활은 불안정하여 교체가 잦았다. 이는 의관들이 치료차 上京하게 됨에 따라 향리에 피해가 된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의술을 천한 기술로 여겨 양반의 반열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던 당시의 주자학적 입장<sup>50)</sup>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원직에 대한 관념적 천시<sup>51)</sup>와는 이율배반적으로 양반들 역시 의학에 대한 관

46) 과거 의학교육의 일반적 형태는 오히려 도제적 수업방식이었다. 17세기 당시 침의의 등용과정과 교육방식을 역으로 오늘날에 대입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당시 침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료체계 내에서 활동한 정통 의료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들은 내의원의 관할하에 활동하였고, 의무와 관련된 직책으로부터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들은 결코 아웃사이더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47) 허임 이후 시대인 효종때의 최윤택(허임 침법의 계승자로 언급되고 있음)는 의과출신으로 내침의가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제도적으로 의과출신을 침의로 기용하도록 정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48) 孫弘烈,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1988, P.218,219,220. 조선초 세종(15년1433) 6월 典醫監提調 黃子厚에 의해 의학에 있어서 전문교육의 실시가 건의된다. 건의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且治病之速 莫如鍼灸 爲醫者明知鍼灸之穴 則不費一錢之藥 諸病可治也 願自今 依上國習醫之法 各立專門 令鑄種所 鑄成銅人 依點穴之法 而試才 則試取之法 亦可實矣”. 이 건의의 요점은 ‘各立專門’이라하여 각각 전문과를 세울 것을 건의한 것이다. 이 건의는 5년 후인 세종20년(1438년) 매년 침구전문생을 3인씩 채용하여 三醫司에 1명씩 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침구전문생을 처음으로 채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4년후 폐지되고 만다. 그러다가 단종 즉위년(1452) 5월에 任元濬의 건의에 따라 침구전문법의 부활되지만, 세조 때에 다시 전문법 취재가 폐지된다. 그러나 성종 3년(1472) 鍼灸醫만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시 침구전문법을 別設한다. 이렇게 존재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결국 필요성은 늘 부각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적 정착은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49) 김양수, 상계서, p.23. 조선후기 들어 의관출신의 지방관 진출은 현저하였다. 17세기 이후 148명이 345회를 역임하여, 중인 가운데 의관 출신이 49%정도, 관직 역임 횟수로는 61%를 차지할 정도였다.

50) 박성래,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P.332,333, 1995, 한길사, 한국사 중세사회의 발전(2)

심은 적지 않았다. 허임이 침의로 왕실에 첫 발을 내디딘 해인 1598년(선조31)에 영의정으로 약방도제조에 재임했던 유성룡(1542~1607)은 그 한 예이다. 그는 퇴임후 침구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鍼灸要訣』<sup>52)</sup>이라는 책을 짓기도 하였다.

이와같이 침구에 대한 열풍이 불었던 한 시대의 주축이었던 노년의 허임은 침구의가로 자신이 임상에서 경험했던 소중한 침구방과 技法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무<sup>53)</sup>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놓고 『침구경험방』을 본다면, 이 책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엽 조선의 왕실과 민간에서의 침구의학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침구치료의 활성화가 허임이라는 탁월했던 침구의가의 손을 통해 맺은 하나의 결실로도 생각할 수 있다.

## 〈참고자료2〉

### 허임과 동시대에 활동한 침구의가들<sup>54)</sup>의 면모

\*전징(全徵): 옥천출신. 광해 2년 12월 내의원에서 말을 보내어 서울에 오게 함

\*김귀상(金龜祥): 거창군의 침의. 광해 2년 12월 왕의 수침을 위해 내의원의 부름을 받음. 광해5년 7월 내의원 主簿를 제수. 침의 유대명과 경기지방의 수령을 서로 맞바꿈. 광해 8년에 상의 판관. 광해 12년 砥平縣監 제수

\*김영국(金英國): 선조 28년 4월에 침의관으로 입시. 선조 39년까지 수차에 걸쳐 입시 수침하였으며 善鍼으로 일세에 명성을 떨침. 광해 2년 12월 金溝郡(현 김제군)에 거하던 중에 수침 위해 상경하였고 경기수령에 제해짐. 광해 5년 정월 나이 70에 현감으로 6품에 있음

\*유대명(柳大鳴): 광해군 3년 7월 내의원 침의로 봉직함. 동 9년 11월 궁천현감으로 재직 선침으로 왕의 총애를 얻어畿甸의 守旣을 特授

\*유언길(安彦吉): 내의원 침의. 광해 8년 정월 軍職에 附하여 내의원에서 常仕. 광해 9년 3월 침의로 活人署 別坐의 職을 제수받음. 동 11년 12월 侍藥廳 論功 때에 兒馬 1필을 하사받음

\*백학기(白鶴起): 영남 출신. 광해 8년 정월에 침술이 정묘하다 하여 상경

\*정대봉(鄭大鵬): 광해 11년 12월 시약청 논공 때에 침의로 兒馬 1필을 하사받음. 陰城縣監을 제수.

51) 손홍렬, 상거서, p.290. 특히 조선초기의 경우는 의학 자체를 천하게 여기지 않았다. 의원직을 천시하고 중인직으로 고착되어 가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후반으로 보여진다.

52) 1600년(선조33)에 초간된 『침구요결』은 『의학입문』의 수혈론을 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한 것이다. 의학입문은 허준의 『동의보감』 「침구편」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쳤지만, 허임과 『침구경험방』에는 그리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53) 허임은 그의 자서에 이러한 심경(仍恐正法之不傳)을 피력하고 있다.

54) 김두중, 1998, 『한국의학사』, p.394~398

\***이형익**(李馨益): 大興人. 인조 10년(1632) 11월 침술이 정묘하다 하여 내의원의 啓請으로 상경. 동 25년까지 수차례 왕에게 燔鍼을 실시. 특명으로 현령에 서용, 의관에 任.

\***유달**(柳達): 침의. 인조 17년 8월 심양의 東宮의 치병을 담당. 동 21년 4월 淸帝가 風眩의 병으로 名醫를 청함에 藥醫 朴頽과 함께 보내짐.

\***유후성**(柳後聖): 輔國, 崇祿 정1품. 침의. 인조23부터 26까지 입시 수침함. 효종 8년 高陽군수 敍任. 현종 어의로 내의원에 봉직. 승록대부의 벼슬. 3대에 걸친 의관으로 경기지방의 수령을 6,7읍이나 역임

\***최유태**(崔有泰): 청주인. 내침의. 현감, 知中樞府事. 효종 2년 의과출신. 인조 7년 己巳생

\***윤후익**(尹後益): 침의. 현종 원년 6월 왕의 小腫으로 입진. 동 6년 왕의 즉부에 산침을 시하고, 동 2년 정월 朔寧현감을 특수. 동 6년 4월에 온양온천에 침의로 동행

### (3) 침구전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부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질병과 빈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은 큰 과제였고, 안정된 통치 기반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조선의 경우도 의학 정책과 의서의 간행은 늘 주된 관심사였고, 그 가운데서도 침구 분야에 기울인 관심은 적지 않았다.

15세기 후반인 성종때 중국침구서 『신응경』을 간행하게 된 것도 침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의서의 간행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韓繼禧(1423~1482)가 쓴 서문<sup>55)</sup>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를 대략 살펴보면, 藥餌와 침구를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지만, 약재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침구에 대해서는 그 경제성과 휴대하기 쉬운 점, 빈부귀천이나 원근, 병의 완급 가릴 것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약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점등의 장점이 언급되고 있다.

침구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은 당시 의료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며 『침구경험방』의 간행을 주도했던 이경식의 언급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의 발문을 보자.

“무릇 병증을 살펴 효과를 거두는데 藥餌보다 나은 것은 없지만, 소오줌이나 말똥도 평소 기르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운데, 金石과 丹砂를 구석진 시골에서 어찌 얻을 것이며, 하물며 한번 복용한다해도 연이어 쓰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침과 뜸은 그렇지 않아 그 기구를 갖추기 쉽고 그 효과도 매우 빠르다. 더욱이 이 方(침구경험방)은 길을 가리켜 인도해 주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진실로 이 方을 가지고 병증에 따라 치료하면 사람마다 다 그 신비한 손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제하고 살리는 바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마땅히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것이요. 때에 따라 끊어지게 없애서는

55) 『침구의학전적대계』(12권), 1971, 중의 『신응경』의 한계희 서문 원문: “...唯砭熇之方 無費財遠求之勞 探暴合和之難 一鍼一艾 備應無方 運於指掌 辦於談笑 貧富貴賤 遠近緩急 無適不宜 況於取效 常在藥力所不及攻處 而其功用神妙 難以備述...”

안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56)</sup>

그의 이러한 언급이 의서간행에 따른 상투적인 언술인 면도 있지만, 그를 위시하여 의료정책을 맡았던 이들이 침구에 관한 실용의서 간행이 당시의 의료현실상 백성들의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침구경험방』의 간행이 이에 부합할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말해 준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이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번잡한 이론서가 아닌 간결한 경험적 언술의 책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침구경험방』은 침구치료의 저변 확대를 통해 침구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대민친화적 성격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한 의서로 볼 수 있다.

#### (4) 허준과 『동의보감』 간행의 영향

조선중기 침구관련 저술의 쌍두마차격인 『동의보감』 침구편과 『침구경험방』은 재미있게도 30년 안팎의 나이 차이가 나는 허준과 허임에 의해, 30여년의 간행 시차를 두고 세상에 나온다. ‘허준과 『동의보감』’은 ‘허임과 『침구경험방』’에 어떤 동기부여와 영향을 주었을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왕실 진료에 10여년을 함께 출입했다는 정황은 두 사람이 서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조37년(1604) 9월 23일의 기록<sup>57)</sup>은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다.

밤에 선조에게 갑작스런 편두통이 발작한다. 입시한 의관 허준에게 선조가 묻는다.

“침을 맞는 것이 어떻겠는가?”

허준이 아된다.

“여러차례 침을 맞는 것이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증세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침의들은 항상 ‘반드시 침으로 熱氣를 해소시켜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말합니다. 소신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기를 ‘經脉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병풍이 쳐지고, 남영이 穴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한달 뒤, 대대적인

56) 『침구경험방』 발문중 “夫按証收效 莫良於藥餌 而牛溲馬勃 非素畜則難辨 金石丹砂 在僻鄉而何獲 況一服打疊 有不可期者耶 鍼烙則不然 其具易備 其效甚速 而其方尤爲指南之捷徑 苟得是方 隨証治之則是家家戶戶皆得遇其神手也 其所濟活 庸可量哉 是宜與世共之 以廣其傳 不可以時詘 而有所靳也”

57) 『조선왕조실록』, 선조37년 9월 23일(庚午), 권178. “○巳時 上御別殿受鍼○初更末 上所患偏頭痛急發 傳于直宿醫官 欲爲受鍼 入直承旨 啓曰 醫官等獨爲入侍未安 入直承旨及史官并入侍如何 傳曰 非受鍼也 欲問證勢 承旨等勿入 又啓曰 許任已到閤門矣 傳曰入來 二更三點入侍御便殿 上曰施鍼如何 浚曰 證勢緊急 不可拘於常例 屢度受鍼 似爲未安 鍼醫等每曰 必施鍼消散熱氣然後痛勢可歇云 而小臣則不知鍼法 渠輩所言如此故啓之矣 許任常言 引經後可以進鍼於阿是 此言似有理 上命設屏王世子及醫官入侍於房內 提調以下 皆在房外 南嶸點穴 許任執鍼 上受鍼”



포상이 따랐다. 어의 허준에게는 숙마 1필이 하사되고, 허임과 남영은 한 자급을 가자받고 6,7품의 관원에서 堂上으로의 파격 승진을 하게 된다.

이 기록에 따르면, 허준이 침의들과 허임의 침구에 대한 견해를 긍정하여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허임도 평소 허준과 침구에 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대목의 기록이 단편적인 점과 허준의 검양스런 언사임은 고려해야겠지만, 허준과 허임간에 더 나아가서는 의관과 침의간에 상호 교류와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왕실내에서 임금의 병을 놓고 함께 고민하며 공동진료<sup>58)</sup>를 해야 했던 처지에서 노의학자 허준의 모습은 젊은 침구의가 허임의 눈에 어떻게 비쳐졌을까? 허임이 왕실에서 침의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때는, 바로 『동의보감』이 찬집에 들어간 바로 직후(1598년)의 일이다. 이 무렵은 태의 허준을 중심으로 局이 설치되고, 여러 의가들이 참여하여 찬집 활동을 벌이던 때였다. 허준의 『동의보감』 저술 작업은 다양한 의설과 의서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활용하기에 효율적인 새로운 의학과 의서가 요망되었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던 바, 그가 독자적으로 저술에 진력하는 기간(1598~1610년)에도 허임은 허준, 이명원등과 함께 공동진료에 참여하는등 활발한 진료활동을 하면서 서로 영향권 내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허임이 이러한 학구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허준을 만난 것은 그의 침구의학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허임이 『동의보감』의 간행을 직접 목도하였다는 사실은 젊어서부터 침구의가로 활동했던 그에게 침구방면의 전문의사 간행에 대한 일종의 책임 같은 것을 느끼게 했는지도 모른다. 『침구경험방』이 『동의보감』에서 받은 구체적인 영향과 두 책의 성격에 대한 비교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진행하기로 한다.

## 4. 『침구경험방』의 편제

### (1) 『침구경험방』의 편제 개략

조선판본의 『침구경험방』은 一卷, 5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판본의 목록에서는 序<sup>59)</sup>, 상권, 중권, 하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序文 — 허임의 기본 의학관(병인, 병기, 경락, 治法, 보사법)과 간행동기 서술

58) 당시의 이런 공개적인 공동진료의 형태를 고려할 때, 『침구경험방』은 허임 개인의 치료 경험을 모았다는 의미를 넘어 그 당시 의가들이 침구치료에 대해 가졌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패턴의 경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59) 이 序는 맨 앞에 별도로 있는 저자의 自序와는 다르다.

序 — 訛穴, 五臟總屬證, 一身所屬臟腑經, 五臟六腑屬病

上卷 — 수혈 정리(십이경혈, 別穴, 募原會穴, 오수혈), 침구법, 折量法

中·下卷 — 각 병증문별 침구치료, 권말에 鍼灸擇日 수록.

序文은 허임의 의학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이며, 序에서는 침구 임상과 관련된 의학이론을 실용적 형식으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권두 배치의 그가 서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질병에 대한 이해와 부분경락에 대한 관찰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도<sup>60)</sup>에서 였다고 생각된다.

그 다음 상권은 수혈에 대한 정리와 일부 침구이론을 소개한다. 수혈을 십이경락 및 임·독맥의 일반혈, 기외경혈, 오수혈, 募原會穴로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침구법, 折量法등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하권은 총 41항목에 이르는 병증문별 임상침구치료를 기술하고 있다. 『침구경험방』이라는 책이름에 걸맞게 이 부분이 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볼 때 『침구경험방』은 책 전체의 字句는 많지 않지만 간결함을 지향하는 기본 원칙하에 병기, 수혈, 경락, 침구이론(보사법, 금기, 취혈법등), 병증별 선혈정리, 침구기법과 경험에 대한 언급등 침구 전반에 걸친 내용<sup>61)</sup>을 비교적 두루 갖추고 있다. 침구임상에 지침이 되는 책의 성격을 지향한 탓에 침구이론에 대한 내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병증수혈 정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임은 先察病, 後治方의 원칙하에 입론에 근거한 치료를 매우 중시한 침구의가였다.

## (2) 병증문의 배열과 분류에 대한 검토

허임은 41항목의 병증문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있을까? 그는 부위별로 된 병증문을 앞서 열거하고, 잡병증들을 뒤에 열거하고 있다. 부위별 병증문은 頭面部→耳部→目部→口部→鼻部→(咳嗽)→咽喉→頰項→齒部→心胸→腹脇→(腫脹)→(積聚)→手臂→腰背→脚膝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머리로부터 얼굴, 목, 몸통앞, 상지, 몸통뒤, 하지의 순이고, 그 부위와 관련 있는 병증을 사이에 끼워 놓기도 했다.(관호 안의 병증) 예를 들면 코와 인후 사이에 咳嗽를, 腹脇 다음에 腫脹과 積聚를 배열한 형태가 그것이다.

雜病證의 경우는 諸風으로부터 시작하여 癲癇, 厥逆, 急死, 痢疾, 痔疾, 陰疽, 霍亂, 瘧疾,

60) 허임은 그의 서문에서 編次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乃將平素聞見 粗加編次 先著察病之要 并論轉換之機 發明補瀉之法 校正取穴之訛 又著雜論若干 且記試效要穴及當藥 合爲一卷……”

61) 참고로 일반적인 침구서의 내용구성은, 경혈과 경락에 대한 분류와 유주 및 주치범위를 다루는 수혈계통의 내용, 침구이론에 대한 내용, 침구의안과 같은 임상기록등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虛勞, 食不化, 黃疸, 瘡腫, 癩癧, 蟲毒, 睡眠, 癍, 消渴, 汗, 傷寒, 大小便, 身體, 嘔吐 등의 순으로 23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뚜렷한 체계를 찾을 수 없어 산만한 느낌을 준다. 맨 마지막으로 부인, 소아문을 실고 있다.

이들 병증문들을 편의상 부위별, 병증별, 과별로 대별해 보면, 부위별로 설정한 것이 13항목이고, 병증별로 26항목, 그 밖에 과별로 소아, 부인 2항목을 두고 있다.(〈표1〉 참조)

또한 이러한 질병목록을 현대의 과별분류체계에 대비해 본다면 개략적으로 〈표2〉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sup>62)</sup>

이를 살펴보면 허임은 내상 잡병들은 물론 외과질병, 五官病, 傷科질환, 부인·소아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의 질병에 침구치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각 병증문에 두고 있는 다양한 세부병증항목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하다.

〈표1〉 병증문의 구분(I) : 부위별/ 병증별

|     |  |               |
|-----|--|---------------|
| 부위별 | 頭面部(4), 耳部(4), 目部(7), 口部(9), 鼻部(5), 咽喉(4), 齒部(5), 頰項(2), 心胸(22), 腹脅(6), 手臂(15), 腰背(6), 脚膝(15)  | 13항목<br>(104) |
| 병증별 | 咳嗽(16), 腫脹(4), 積聚(7), 諸風(10), 癩癧(18), 厥逆(6), 急死(4), 痢疾(6), 痔疾(3), 陰疝(11), 霍亂(9), 瘧疾(7), 虛勞(勞瘵)(4,3), 食不化(8), 黃疸(6), 瘡腫(13), 癩癧(6), 蟲毒(2), 睡眠(2), 癍(內傷瘀血)(1), 消渴(3), 汗(8), 傷寒(15), 大小便(10), 身體(身部)(10), 嘔吐(5), /雜病(4) | 26항목<br>(208) |
| 과별  | 부인문(39), 소아문(53)   | 2항목(92)       |

\*( )안의 숫자는 세부병증항목의 숫자. 총 404병증

〈표2〉 병증문의 구분(II): 과별

62) 분과별 구분은 박찬국주편, 1998, 『현토황제내경강의』 p.123 이하의 구분을 참고로 하였다. 인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했던 전통의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구분이 무리가 있기도 하지만 이해를 돕는 면에서 대체적인 구분을 해본다.

|     |                           |                      |
|-----|---------------------------|----------------------|
| 내 과 | 소 화 기                     | 食不化, 곽란, 구토, 황달, 腹脇  |
|     | 순 환 기                     | 諸風, 身體(不仁諸症), 心胸     |
|     | 호 흡 기                     | 해수                   |
|     | 비뇨/생식기                    | 陰疽(五淋, 陰痿), 腫脹, 대소변  |
|     | 감 염 질 환                   | 상한(瘟疫), 학질, 이질, (勞瘵) |
|     | 종 양 질 환                   | 積聚                   |
|     | 전 신 질 환                   | 虛勞, 消渴               |
| 오관과 | 耳部, 目部, 口部, 鼻部, 인후, (衄血)  |                      |
| 외 과 | 瘡腫, 癩癰, 치질, (腋腫)          |                      |
| 정신과 | 癲癩, 수면, 두면부               |                      |
| 상 과 | 脇項, 腰背, 脚膝, 手臂, (轉筋), 癆   |                      |
| 소아과 | 소아문                       |                      |
| 부인과 | 부인문                       |                      |
| 기 타 | 厥逆, 急死, 蠱毒(蟲痛), 齒部, 汗, 雜病 |                      |

### (3) 병증분류의 의미와 실제성 검토

허임은 이러한 모든 병증에 실제로 침구치료를 다 이용했을까? 『침구경험방』의 병증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응방식과 선혈경향은 그가 실제로 치험한 것을 서술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첫째, 일례로 套頭灸法이란 방법을 咳嗽門의 哮喘症(28쪽, 앞)<sup>63</sup>, 風部の 口噤·痰塞症(39쪽, 앞), 嘔吐門의 吐血上氣症(64쪽, 뒤)에 반복 사용하고 있고, 또한 刺絡출혈법을 頭面部門의 風癩症(25쪽, 뒤), 瘡腫門의 風丹이나 丹毒症(36쪽, 뒤), 소아문의 火丹毒(67쪽, 뒤)등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특정한 침구법이나 혈위를 유사한 병증에 여러차례 일관성있게 반복언급하고 있는 점은 그가 일정한 침구치료패턴을 폭넓게 대응한 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癩癰문의 連珠瘡(58쪽, 뒤)에 百勞나 肘尖穴, 積聚門의 疰疔(34쪽, 앞)에 甲根, 獨陰, 痞根穴을 이용하는등 거의 모든 병증문마다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는 경외기혈의 선혈은 그만의 특색있고 고심어린 침구치료대응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瘡腫門<sup>64</sup>의 각종 癰疽(髮際腫, 脣腫, 面腫, 背腫, 肺癰, 陰腫, 臀腫, 回骨症, 小癰腫, 腸癰, 疔腫, 縷疔등)의 처치법(50쪽, 앞~55쪽, 앞)은 모두 경험을 서술한 것이다.

이 밖에도 虛勞(勞瘵)門의 灸法대응(46쪽, 앞, 뒤)이나, 癲癩門의 治鬼邪法(39쪽, 뒤~40쪽, 뒤; 71쪽, 앞), 상한문 및 학질문에서의 분류에 대한 관심(61쪽, 앞~62쪽, 앞, 45쪽, 앞, 뒤), 권역문 및 急死門등 응급질환에 대한 대처법(41쪽, 뒤~42쪽, 뒤), 치질문의 처치법(43쪽, 뒤)등

63) 『침구경험방』 규장각 목판본(한국의학대계본과 같다)의 원래 쪽수이다. 앞은 전면, 뒤는 후면이다. 이하 동일.

64) 허임이 瘡腫門(癰疽 포함)에 보이고 있는 관심은 매우 깊은 것이다. 이는 당시 외과질환이 침구가 담당했던 영역중 주요한 부분이었음을 말해 준다. 허임 전후시대 타의가, 타의서의 외과적 대응법과 『침구경험방』의 각종치료법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은 모두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언급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가 침구라는 치료수단을 광범위한 병증에 대응한 것은 단순히 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편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침구경험방』의 광범위한 목록구성은 상당부분이 실제로 그가 임상에서 대응했던 다양한 질병들의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sup>65)</sup>이며, 또한 그렇게 광범위한 활용을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해 허임은 당시 침구라는 치료수단을 모든 병증에 전면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병증목록은 허임 자신의 개인적인 침구치료를 전제로 한 질병분류방식이라는 측면을 넘어 그가 활동했던 17세기 전반 조선에서 취했던 대체적인 질병분류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4) 『침구경험방』의 서술형식상의 특징

『침구경험방』의 서술형식을 살펴보자. 허임은 서술하는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모들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는, 서문을 통해 자신의 의학적 관점과 기본이론을 상당부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인, 병기, 치법, 진단, 경락순행, 침구보사법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서문에 기록하고 있다.

둘째는, 요약형식의 서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실천적인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五臟總屬證, 一身所屬臟腑經, 五臟六腑屬病 등 세 부분은 이를 잘 보여준다.

셋째는, 많은 병증문에서 서두에 간결한 이론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적게는 1~2행에서 많게는 5~6행 분량의 생리, 병기, 진단, 치법, 장부·경락 배속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다른 침구임상서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침구경험방』의 독특한 서술방식으로, 이론에 근거한 치료를 시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예) 腰背門<sup>66)</sup>의 경우

腰背痛者 腎氣虛弱而當風 坐臥觸冷之致也 → 병인에 대한 요약

臟病不離其處 腑病居處無常 → 감별진단

膀胱經及肝膽經主之 宜用缸灸 每處鍼刺 每處缸灸 七次神效 → 경락배속 및 치법

넷째는, 병증문의 서술 방식이다. 각 병증문 아래에 세부병증을 설정하고 1~10여처의 수혈을 선록하는 형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신응경』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65) 황용상은 그의 『침구명저집성』 p.1213~1214에서 『침구경험방』의 내용이 편자의 경험만을 전부 다 수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허임의 다년간에 걸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임상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66) 『침구경험방』 목판본, 36쪽, 앞

- (예) 鼻部<sup>67)</sup> — 鼻中瘻肉 — 上星, 迎香, 合谷 ……등 8혈 선록  
 鼻 塞 — 百會, 上星, 顛會 ……등 6혈 선록  
 鼻 衄 — 風府, 迎香, 上星 ……등 9혈 선록  
 鼻不聞香臭 — 顛會, 天柱, 水溝 3혈 선록  
 衄血不止 — 肺俞, 合谷, 間使……등 7혈 선록

다섯째, Case Report와 같은 의안은 없으나,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침구치료 기법<sup>68)</sup>을 실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水臂筋攣酸痛에 天應穴을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34쪽, 뒤), 肘關節痛에 透刺法을 활용하는 방법(35쪽, 앞), 鍼中腕穴手法(33쪽, 뒤), 浮腫鼓脹에 鍼水分穴出水法(32쪽, 뒤~33쪽, 앞), 陰腫·臀腫·回骨疽등에 鍼破出膿하는 방법(53쪽, 앞)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적 서술을 하고 있다.

여섯째, 일부는 언문병명을 병기하고 있어서 17세기초 민간에서 쓰던 우리말 병명의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표3〉 참고)

〈표3〉 『침구경험방』에 나타나는 우리말 병명 (22개)

|      |           |         |        |      |        |
|------|-----------|---------|--------|------|--------|
| 齒齩痛  | 벌레먹은이     | 腋腫·馬刀挾癭 | 것가래증   | 雀目   | 밤눈못보는증 |
| 腰背偃僂 | 등구분증      | 皮風瘡     | 것바람증   | 顛門不合 | 수구멍어윈증 |
| 脚氣   | 수중다리      | 汞毒瘡     | 슈은독    | 驚癩癩癩 | 주리힐호는증 |
| 便毒   | 가래똥       | 癭瘤      | 혹도든증   | 昏睡露睛 | 자며눈뜨는증 |
| 歷節風  | 마디마디부어얇는증 | 肉瘤      | 삼혹     | 撮口   | 입오그리는증 |
| 痔乳頭  | 내민살       | 血瘤      | 프른피뵈   | 痘疹   | 역질     |
| 龍瘡   | 룡청증       | 蠱毒      | 노을     |      |        |
| 附骨疽  | 무나는증      | 淋瀝      | 오좁춷든난증 |      |        |

(5) 『神應經』 편제와의 비교

三木榮<sup>69)</sup>, 李景華<sup>70)</sup>, 황용상<sup>71)</sup>등은 『침구경험방』이 『신응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과연 어떤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침구경험방』은 『신응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다. 그러나 그 정도는 『침구경험방』의 독특성을 훼손할 정도는 결코 못되며, 책 전체로 보아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

67) 『침구경험방』 목판본, 27쪽, 뒤

68) 허임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침법을 많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운동기질환, 외과질환(창중, 용저 등)에서는 이러한 침구 테크닉적인 언급이 여러차례 언급되고 있다.

69)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p.205. 그는 『침구경험방』을 유근의 『신응경』을 기본으로 하면서, 허임 자신의 경험을 혼합한 침구전문서로 보고 있다.

70) 李景華는 그의 『廣濟秘笈』 引處諸書에서 許任方을 두고 “『神應經』을 표절한 것이다(剽竊神應經者也)”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표절’云云은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평가이다. 한편 그는 『신응경』에 대해서도 許叔微의 저서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

71) 황용상, 상계서, p.1213.

는다는 것이다. 두 책의 편제를 정리한 다음의 표와 내용의 비교를 통해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래 <표4>의 목록구성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신응경』<sup>72)</sup>은 수혈에 대한 정리(百穴法歌와 穴法圖), 折量法, 보사법을 제외하고는 病證驗穴을 위주로 하고 있는 침구서이다. 일견으로는 『침구경험방』 역시 같은 유형의 책이라 할지 모르나, 총론부분을 내용면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침구경험방』과 『신응경』의 목록구성비교 (총론과 병증문으로 구분해서)

|            |                | 神 應 經   | 침 구 경험 방   |
|------------|----------------|---|--|
| 총론         |                | *수혈: 百穴法歌, 穴法圖<br>*보사법: 補瀉手法<br>*취혈: 折量法                | *수혈: 十二經抄穴, 別穴, 募原會穴, 五腧穴<br>*장부병기: 五臟總屬病<br>*경락병기: 一身所屬臟腑經, 五臟六腑屬病<br>*취혈: 訛穴, 折量法<br>*침구법: 鍼灸法 |
| 병증문        | 같은 병증          | 諸風, 傷寒, 霍亂, 瘧疾, 腫脹, 汗, 頭面, 咽喉, 婦人, 소아, 疝病(11)           | 積聚, 瘡腫   |
|            | 유사한 병증         | 諸般積聚, 瘡毒  | 해수   |
|            |                | 痰喘해수  | 癲癩   |
|            |                | 心邪癲狂  | 腹脇   |
|            | 세분화 시킨 병증      | 腹痛脹滿  | 厥逆   |
|            |                | 痺厥  | 陰疝, 大小便, 痔疾  |
| 陰疝小便, 腸痔大便 |                | 耳目, 鼻口  |  |
| 추가한 병증     | 耳目, 鼻口         | 胸部, 腹脇, 腰背, 手臂,   |  |
|            | 胸背脇, 心脾胃, 手足腰腋 | 脇項, 脚膝, 急死, 痢疾, 虛勞, 食不化, 黃疸, 瘰癧, 蠱毒, 睡眠, 消渴, 身體, 嘔吐(13) |  |
| 병증문 수      | 24             | 41  |  |

『침구경험방』이 『신응경』으로부터 도움을 입은 것은 병증문의 외형적 서술형식과 일부 선혈내용이다. 『신응경』의 편제나 내용과의 영향관계를 다음 몇가지 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신응경』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부분

72) 최근 황용상은 『신응경』의 내용을 고찰한 결과 『신응경』이 명 이전의 의학문헌을 모아 편찬한 『普濟方』의 침구문을 개편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그간 席弘派의 鍼法을 전수 받은 陳會의 『廣愛書』를 그의 제자 劉瑾이 보완하여 만들었다는 기존의 통설과는 다른 것이다.

折量法, 灸四花穴法

2) 『신응경』을 참조응용한 부분

① 병증문의 서술방식

병증문→세부병증→치료혈 선록의 형식 즉 병증문 아래 세부병증항목을 두고 치료혈들을 나열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신응경: 24병증문→612세부병증

\*침구경험방: 41병증문→404세부병증

② 병증문 분류명칭~ 『침구경험방』에서는 『신응경』의 24항목보다 더 세분하여 41개의 병증문<sup>73)</sup>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거나 유사한 병증항목이 있지만, 세분된 부위별 구분이나 다른 이름의 병증이 숫적으로 더 많다.

③ 일부 치료혈 선택~ 선혈의 유사성<sup>74)</sup>, 즉 침구치료의 내용이 얼마나 같은가 하는 점인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해수문<sup>75)</sup>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표5>는 해수문중 『신응경』의 병증명칭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는 항목을 위주로 선혈내용을 비교해 본 것이다.

<표5> 세부병증 및 선혈에 있어서의 인용사항 검토 (해수문 비교를 통해)

73) 41개의 병증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침구경험방』의 분류체계는 『신응경』보다는 뒤에 언급될 『동의보감』의 병증분류에 더 근접해 보인다.

74) 선혈의 경향성과 관련하여서는 『신응경』이 매 병증에 1~10여개의 혈위를 선록하면서, 오수혈을 다용한 특색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은 『침구경험방』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신응경』이 경외기혈을 사용한 경우가 극소수인데 비해, 허임은 경외기혈(별혈이라는 이름으로)과 혈명없이 부위만 설명한 경혈들을 비교적 다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허임이 오수혈을 다용한 경향성이 어떤 영향에서였는지는 침구학자들의 학술경향에 대한 보충연구가 필요하다.

75) 해수문을 예로 선택한 이유는 비교적 『신응경』의 병증을 많이 참고(16개 세부병증중 7개 병증이 거의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병증문의 『신응경』인용 정도는 이보다도 훨씬 적다.



| 병 증   | 신응경의 선혈  | 동일한 선혈                                     | 추가한 선혈        |
|---|--|--|---------------|
| 乾嘔  | 間使30장 膽俞 通谷 隱白   |  | 期門3장          |
| 咳嗽飲水  | 太淵   | 太淵   | 神門 支溝 中渚 合谷   |
| 喘嘔欠伸  | 經渠   |  | 太淵 中腕 下三里 三陰交 |
| 唾血內損  | 魚際瀉 尺澤補 間使 神門 太淵<br>勞宮 曲泉 大淵 大溪 然谷 太衝 肺俞100장 肝俞3장 脾俞3장 | 魚際瀉 尺澤補<br>間使 神門 肺俞<br>100장 肝俞100장<br>脾俞3장 | 太衝 下三里        |
| 痰涎  | 陰谷 然谷 復溜   | 然谷 復溜                                      | 腎俞            |
| 喘息不能行   | 中腕 期門 上廉   | 期門 中腕                                      | 下三里 合谷 上星     |
| 結積溜飲  | 膈俞5장 通谷(灸)   | 膈俞   | 照海 中腕         |
| 혈 수   | 28   | 13   | 17            |
| 咳逆不止, 失音, 唾喘, 嘔吐不下食, 喘急, 哮喘, 飜胃酒及粥湯皆吐, 肺癰咳逆上氣, 痰喘 |  | 좌변의 9개 병증은 『신응경』엔 없고, 『침구경험방』에만 나옴.        |               |

이 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허임이 『신응경』의 선혈과 동일한 선혈을 한 것 보다는 그의 견해에 따라 제외하거나 추가한 수혈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신응경의 28혈 중에서 14혈을 빼고, 자신이 17혈을 더하고 있다.) 이는 『신응경』에는 없는 병증을 더 많이 두고 있고, 해수문보다 인용 의존도가 낮은 병증문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침구경험방』이 『신응경』의 구성체계와 일부내용을 참조하여 인용하고는 있지만, 『침구경험방』의 전체 분량상 그리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 3) 『신응경』과는 다른 내용

①보사법~ 『신응경』의 補瀉手法은 복합보사를 논한 특색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허임은 이를 인용하지 않고, 『기효양방』의 보사법을 변용하여 자기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②수혈에 대한 정리<sup>76)</sup>~ 『신응경』은 歌賦형식의 百穴法歌를 수록하고 있고, 아울러 126혈을 경락의 유주순으로 나열하고 있는 반면, 『침구경험방』에서는 手足端으로부터 체간이나 두면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두가지 점은 『신응경』에 있는 내용에 대비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침구경험방』을 『신응경』과 구별되게 하는 차이점은, 『신응경』이 단순하게 병증에 따른 치료혈위의 선록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침구경험방』은 허임 자신의 임상경험에서 나온 치료법과 이론을 특색있게 결합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즉 『침구경험방』이 『신응경』으로부터 외형적인 틀을 참조하고 일부의 내용면을 응용하여, 자신만의 특색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재구성한 책이라는 것이다.

76) 『침구경험방』의 수혈정리는 『동인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6) 『동의보감』 침구편/침구법과의 편제 및 성격 비교

비슷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나온 두 책의 성격과 편제상의 특징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과연 『동의보감』은 『침구경험방』의 편제와 내용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먼저 『동의보감』 침구편/침구법의 편제방식을 보자. 『동의보감』은 복합구성방식으로 침구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다. 즉 별도의 침구편을 두어 침구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한편, 침구치료에 관한 내용은 內景, 外形, 雜病이라는 『동의보감』만의 독특한 편제방식에 따라 각 병증문 끝에 분산시켜 “침구법”이란 제하에 수록하고 있다. (〈표6〉, 〈표7〉 참고)

〈표6〉 『동의보감』 침구편과 『침구경험방』의 편제 구성 비교

|      | 침구경험방                                | 동의보감   |
|------|--------------------------------------|--|
| 수혈   | 십이경抄穴, 別穴, 募原會穴, 井榮俞經合旁通, 患門穴, 四花穴   | 수태음폐경左右凡20穴~족궤음간경左右凡26穴, 獨맥(임맥)流注及孔穴, 오장육부所屬五臟五行, 子午八法, 오장육부有疾當取十二原, 장부要穴, 六合所出所入, 足三焦別脈, 八會穴, 人身四海腧穴, 大接經, 主病要穴, 奇穴(取膏肓腧穴法, 取患門穴法, 取四花穴法, 騎竹馬灸法), 別穴, |
| 경락   | 五臟總屬證, 五臟六腑屬病                        | 십이경맥流注腧穴, 수태음폐경유주~족궤음간경유주, 十五絡所生病, 십이경血氣多少, 십이경行度部分, 脈病有是動有所生病, 脈有經脈絡脈孫絡脈, 奇經八脈, 六經標本  |
| 鍼法   | 침구법 (鍼중완혈手法)                         | 製九鍼法, 鍊鍼法, 四時鍼法, 鍼刺淺沈法, 火鍼法, 鍼法有巨刺繆刺散刺,  |
| 灸法   | 침구법, 灸後治法, 灸後有熱, (騎竹馬穴法, 諸藥灸法, 八穴灸法) | 點穴法, 製艾法, 作艾炷法, 取火法, 下火灸時法, 灸法, 壯數多少法, 發灸瘡法, 療灸瘡法, 調養法, 諸藥灸法   |
| 보사법  | (서문중에 언급)                            | 鍼補瀉法, 用鍼宜審逆順, 五奪勿用鍼瀉, 鍼法有瀉無補, 灸補瀉法   |
| 취혈법  | 折量法                                  | 量分寸法   |
| 禁忌   | 금기, 禁鍼穴, 禁灸穴                         | 鍼灸禁忌, 禁鍼灸(刺中五臟死候, 失鍼致傷, 禁鍼穴, 禁灸穴)  |
| 鍼灸擇日 | (九宮數, 鍼灸吉日, 鍼灸忌日, 太乙遊八節日數)           | 擇鍼灸吉日法, 太乙徒立於中宮朝八風占吉凶, 九宮圖, 身形應九野, 太乙遊八節日數, 九宮九神圖, 遂日人神所在, 鍼灸吉日, 鍼灸忌日, 向坐法   |
| 기타   |                                      | 鍼灸不可並施, 不耐鍼灸, 用鍼須合天時, 鍼要得術, 鍼有上工中工, 鍼入着肉, 氣行有街, 子午流注   |

앞서 살펴본 『침구경험방』의 편제와 위의 〈표6〉의 편제비교를 검토해볼 때, 『침구경험방』이 『동의보감』의 편제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침구경험

방』의 앞 총론 부분은 『동의보감』의 침구편과는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허임은 내경, 외형, 잡병의 3분편제방식을 엄두에 두지 않았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위별, 병증별의 2분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병증문 목록구성에 있어서는 외형편과 잡병편의 병증이름과 동일되거나 유사한 것이 많아 어느정도 참고<sup>77)</sup>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표7〉참고) 내용중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곳은 別穴<sup>78)</sup>항목과 鍼灸擇日항목이다.

〈표7〉 『동의보감』 침구법과 『침구경험방』의 병증문 비교

| 동의보감 | 침구법을 언급하고 있는 병증  | 『침구경험방』 병증문 |  |
|------|--|-------------|--|
| 내경편  | 精,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胞, 蟲, 小便, 大便, 身形(灸)(臍灸法)  |             |  |
| 외형편  | 頭,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胸, 乳, 腹, 腰, 脇, 脈, 筋, 骨, 手, 足, 前陰, 後陰, 皮(灸), 肉  | 부위별 병증      | 頭面部, 耳部, 目部, 口部, 鼻部, 咽喉, 頰項, 齒部, 心胸, 腹脇, 手臂, 腰背, 脚膝  |
| 잡병편  | 風, 寒, 濕, 火, 內傷, 虛勞, 霍亂(침법), 嘔吐, 咳嗽, 積聚, 浮腫, 脹滿, 消渴(금기법중), 瘰癧, 癩疫, 邪祟, 癰疽(침법-蟻鍼法), 諸瘡(白癩瘡, 疥癬, 腫瘡), 諸傷, 救急, 부인, 소아, 疝氣(灸), 癰疽(烙法, 구법), 癰癰, 癰癰, 疝瘻, 解毒,(諸蟲傷) | 잡병증         | 咳嗽, 腫脹, 積聚, 諸風, 癩癰, 厥逆, 急死, 痢疾, 痔疾, 陰疽(五淋, 陰痿), 霍亂, 瘧疾, 虛勞(勞瘵), 食不化, 黃疸, 瘡腫, 癩癰, 蟲毒(蟲痛), 睡眠, 瘵, 消渴, 汗(轉筋, 衄血), 傷寒(癩疫), 大小便, 身體, 嘔吐, 婦人, 小兒 |

그러나 두 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일부 영향의 가능성보다도 더욱 눈에 드러나는 것은 내용서술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 『동의보감』에서 허준은 자기의 편제방식<sup>79)</sup>을 쓰고는 있지만 인용문을 위주로 정리하는데 그치고 있어 자신이 추가한 견해를 거의 찾기 어렵지만, 허임은 『침구경험방』에서 부분적인 인용에 첨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표명을 빈번히 하고 있다는 점이 양 책의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양 책의 편제상의 영향과 차이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동의보감』의 구성 방식은 한 병증에 약물과 침구를 겸용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편리함을 준다. 그러나 침구관련부분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동의보감』의 무게중심은 병증문에 산재해 있는 침구법보다는 아무래도 별도의 침구편쪽에 더 쏠리는 듯 하다. 즉 개별 치료보다는 이론의 체계적인 정리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동의보감』 침구편은 역

77) 잡병증의 목록중 양 책이 동일한 것으로는 해수, 적취, 疝氣, 疝氣, 구토, 나력, 황달, 소갈, 癰疽, 부인 소아등 이 있고, 유사한 것으로는 風-諸風, 寒-傷寒, 救急-急死, 癰疽·諸瘡-瘡腫, 邪祟-癩癰, 脹滿·浮腫-腫脹, 咳嗽-瘧疾등이 있다.

78) 『침구경험방』 別穴중 『동의보감』 奇穴로부터 집록한 수혈은 32개혈로 여겨진다.

79) 『동의보감』의 병증분류체계는 매우 정연하다. 이에 비하면 『침구경험방』의 분류는 다소 거칠고 산만하다.

대침구제서중 실제적인 내용을 뽑아 침삭 변용해 가며 치밀한 자신의 구성체계 속에 재구성한 이론적 정합성이 돋보이는데 비해, 『침구경험방』은 병기 및 침구이론의 요약정리를 중시하면서도 병증별 임상침구기법과 선혈을 주축으로 하는 경험적 실제성이 돋보여 두 책이 묘한 대조를 보인다.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의 이러한 성격 차이는 약물과 침구를 병행하는 종합적 치료를 지향하면서도 다분히 약물치료를 위주<sup>80)</sup>로 삼았던 허준의 입장과 침구의가의 전문성이 고려되는 시대적 상황 아래 침구임상가로 활약했던 허임의 입장<sup>81)</sup>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두 책은 침구이론과 임상, 양면에 걸쳐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적 체계를 가지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조선침구학 발전의 귀중한 성과로 비교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뒷날 이 두 책을 중심으로 『침구집성』<sup>82)</sup>이라는 撰集이 나오게 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이다.

### Ⅲ. 결 론

이상 허임의 『침구경험방』과 관련자료를 토대로 허임의 생애, 『침구경험방』의 간행과 판본, 간행배경, 편제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소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허임은 16세기말에서 17세기초에 활동한 조선의 침구의가이다. 그는 천민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로부터 26년간을 왕실의 침의로 활약했으며, 선조와 광해군의 두터운 신임속에 수차례 경기지역의 지방관을 역임하기도 하였

80) 침구편을 제외한 『동의보감』 각 편 전체의 분량에서 침구법이 차지하는 분량이나, 병증을 불문하고 처방을 먼저 열거하고 침구법을 뒷 편에 두고 있는 서술순서로 볼 때, 침구치료에 대한 허준의 입장은 약물치료를 보조하는 이차적인 치료법이었다고 보여진다. 이 말은 『동의보감』 침구법이 부실하다는 말과는 다르다.

81) 허임의 경우 침구라는 치료수단은 약물치료를 보조수단이 아니었다. 아무리 위급한 경우나 난치질환에도 침구치료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했던 절박한 현실이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대의 허임과 그의 『침구경험방』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오늘날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82) 주24)참조. 거의 모든 중국침구학사 책들이 『침구집성』이라는 책에 대해 잘못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원전을 직접 검토하지 않고 앞 사람의 언급을 답습하는데서 오는 나쁜 연구 풍토 때문이다. 僞書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조선 침구학의 성과를 모은 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 책이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밝히는 것은 잃었던 조선침구서의 위치를 바로 자리매김하고, 조선침구학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 그는 神의 기술을 가진 침구의가로 명성을 날렸고, 鍼家들로부터도 추앙을 받았다. 말년에 이르러는 평생 동안 자신이 탐구한 침구법과 경험을 올바르게 전할 목적으로 『침구경험방』이라는 침구전문서를 저술하였다.

2. 『침구경험방』은 1644년(인조22)에 초간목판본이 간행된 이후, 활자본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重刊이 있었고, 필사본의 형태도 민간에 많이 유포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판본의 존재는 이 책이 후세의 침구임상에 미친 영향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특유의 간결성과 실용성은 조선후기의 민간침구의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장점이 되었고, 일본과 중국에까지 전해져 침구의서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으며 간행됨으로써 조선침구학의 일면모를 해외에까지 소개하는 개가를 올렸다.

3.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았을 때 『침구경험방』의 간행은 허임이라는 뛰어난 침구의가의 등장이라는 면 외에도, 조선초기 이래 꾸준히 침구관련의서를 간행하는등 침구학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집적되어온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특히 조선중기 이후 침의들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사회전반적으로 침구치료가 활성화되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나온 조선침구학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허준의 『동의보감』의 간행으로 대표되는 조선후기의학의 새바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입었으며, 전문침구서가 절실했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

4. 『침구경험방』一卷은 서문과 총 52항목의 목록 그리고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허임은 “先察病 後選穴”의 의학관점에 입각하여 編次의 대강을 정하고 있다. 즉 간결하게 정리한 기본病機, 수혈론, 침구이론부분을 서문과 권두에 먼저 배치하고, 이어서 총 41항목에 이르는 병증문을 두고 있다. 이러한 편제 구성은 『침구경험방』이 경험적 실용성을 지향한 임상鍼灸治方 성격의 침구서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임과 아울러, 질병과 진단에 대한 선행적 이해를 매우 중시했던 허임의 착실한 학풍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병증문의 배열에 있어서는 부위별 병증을 신체 상부에서부터 하부의 순으로 먼저 배열하고, 이어 잡병증을 배열하고 있는데 다소 산만하여 특별한 체계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병증목록은 17세기 전반 조선에서의 질병분류의 한 경향으로 볼 수 있으며, 많은 병증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험적 技法과 選穴상의 독특함은 당시 침구라는 치료수단이 매우 광범위한 병증에 걸쳐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6. 『침구경험방』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신응경』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병증문서술의 외형적 형식과 선혈내용, 折量法등 일부내용을 인용, 참조한 점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先察病”의 원칙에 따른 병기의 중시, 보사법, 경험적 鍼灸技法, 選穴상의 독창성 등은 『침구경험방』을 독특한 형식과 내용의 침구전문서로 간주하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다.

7. 『침구경험방』보다 30여년 앞서 간행된 허준의 『동의보감』 침구편/침구문의 영향도 일부 인정되었다. 그러나 두 책은 편제방식과 내용에 있어 각자가 지니는 특색이 더욱 두

드러져 보인다. 치밀한 이론적 재구성과 경험적 실제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두 책의 특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많으며,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진 조선침구학의 성과이다. 훗날 『침구집성』이라는 僞書가 이 두 책을 함께 全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가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